

주요 농수산물식품 수출품목 단가 추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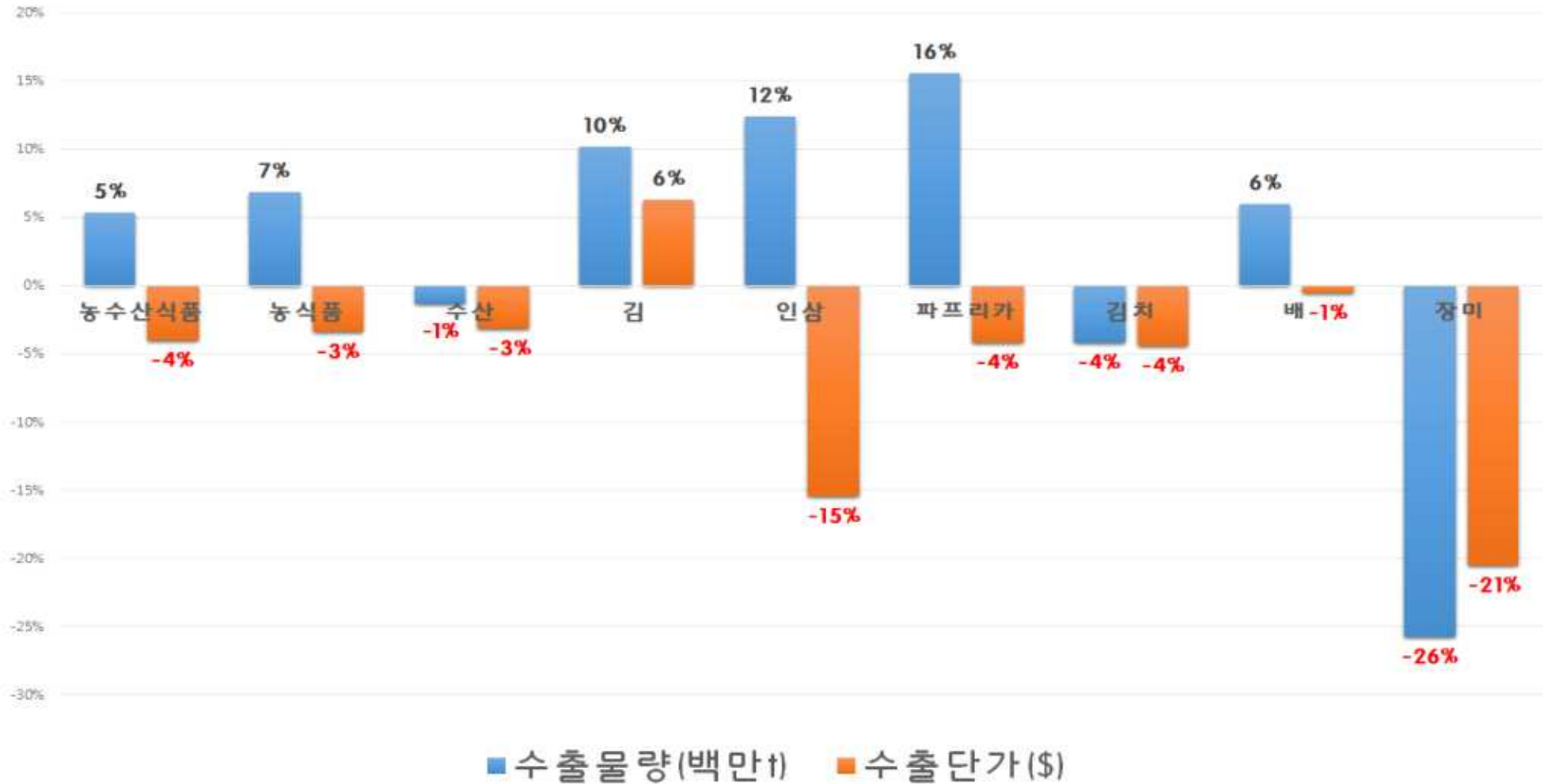
□ 주요 품목별 수출규모 및 단가

(단위 : t, 천\$)

품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농수산물식품	3,479,445	7,691,320	2.21	3,914,371	8,006,060	2.05	4,023,123	7,875,904	1.96	4,306,761	8,249,709	1.92	4,286,003	8,032,505	1.87
농식품	2,792,730	5,383,522	1.93	3,205,980	5,644,810	1.76	3,335,885	5,724,582	1.72	3,605,251	6,182,743	1.71	3,635,051	6,107,261	1.68
수산물	686,715	2,307,798	3.36	708,390	2,361,250	3.33	687,238	2,151,322	3.13	701,510	2,066,966	2.95	650,952	1,925,244	2.96
김	11,964	161,494	13.50	15,134	231,012	15.26	15,908	251,694	15.82	15,556	274,390	17.64	17,722	305,451	17.24
인삼	3,695	189,305	51.23	4,369	150,828	34.52	5,118	174,916	34.18	5,819	183,532	31.54	5,927	155,102	26.17
파프리카	16,513	65,865	3.99	20,765	88,807	4.28	22,067	87,034	3.94	23,138	79,611	3.44	29,376	85,154	2.90
김치	27,429	104,577	3.81	27,664	106,608	3.85	25,631	89,277	3.48	24,742	84,033	3.40	23,112	73,546	3.18
배	17,990	47,268	2.63	15,709	49,918	3.18	20,163	55,014	2.73	23,142	62,318	2.69	22,706	58,360	2.57
장미	2,338	25,676	10.98	2,141	27,142	12.67	1,774	15,064	8.49	1,188	7,807	6.57	745	3,264	4.38

* 농수산물식품수출지원정보(KATI) 수출통계 참조

□ '11~'15년 연평균 증가율 그래프



□ 분석결과

- 지난 5년간 국내산 농수산물식품의 수출물량은 연평균 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수출단가는 △4%로 하락하는 추세임
- 수출 농산물 가운데 단일 신선농산물 품목으로 수출규모가 가장 큰 파프리카는 2011년 16,513톤 수출량 대비 2015년에는 29,000톤으로 77.9%가 증가하였으나 수출단가는 △27.3로 하락하였음
 - 수출단가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첨단 유리온실 건설로 파프리카 생산기술이 향상되어 생산량이 급증하였고, 지속된 엔저영향 및 95%이상이 일본에 집중되는 편중화현상으로 분석됨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출단일조직 육성을 통한 수출창구 일원화로 국내산 파프리카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신규 수출시장 개척이 절실
- 인삼의 경우 2014년 1억 8900만 달러를 수출했지만 2015년에는 1억 5,500만 달러로 5년 전보다 △18% 감소
 - 시진핑정부의 부정부패방지법 시행 후 고가의 홍삼제품(홍삼정, 뿌리삼 등)의 소비가 둔화된 반면, 홍삼음료 등 가격이 낮은 제품의 매출증가로 수출단가가 연평균 △15%로 꾸준히 하락한 것으로 드러남
- 장미는 수출규모 및 단가가 각각 연평균 △26%, △21%로 매년 급감하여 5년간 수출부진을 보이고 있음
 - 화훼는 '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3년 이후로 엔저 장기화에 따른 화훼 농가의 채산성 악화로 농가들이 작목전환(파프리카, 토마토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남
- 김 수출 가격은 2011년 kg당 13.5달러이던 수출단가가 2015년에는 17.24달러로 27.7%가 상승
 - 조미김의 경우 기존에 수출국이 일본에서 미국, 중국 및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국내산 김의 수요가 확산되어 경쟁력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 됨